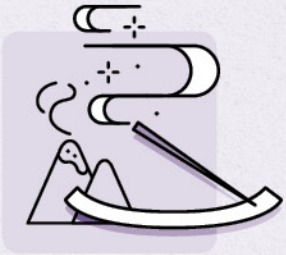

향류

향, 말향, 선향, 원추형 향

01 제품에 대하여

- 가라, 침향, 백단 등의 향나무나 향기가 좋은 한방약·생약 원료 등으로 만들어진 향료를 태우기 위한 제품으로 불교 의식과 같은 종교의식을 할 때 혹은 향을 피워 그 향기를 즐기는 생활문화권(일본의 향도)에서 사용된다.
- 형태로는 분말형의 분향이나 말향, 막대기 모양의 선향이나 스틱, 원뿔형의 콘 인센스나 소용돌이 모양 등이 있다.
- 분향은 천연물 유래의 향나무를 잘게 썰어 조합한 향으로, 주로 불교 의식에 이용된다. 향로 안의 불씨(향탄 또는 말향)에 얹어 사용한다.
- 선향은 주로 후박나무 껍질을 건조시킨 불소화성의 다당류를 증점제로 만든 것으로, 불교 의식에 사용된다. 한쪽 편에 점화하여 향로재에 세우거나 눕혀서 사용한다.
- 일본의 향도에서는 향로에 재와 불을 붙인 숯덩이를 넣어 재를 만든 후, 그 위에 운모판을 얹고 몇 mm 모서리에 얇게 썬 향목을 달구어 향기를 즐긴다.
- 실내 방향제 등에 사용되는 향(콘 인센스 등)은 목분에 향료(프래그런스 오일이나 합성향료)를 첨가해서 만든 제품도 있다.

02 초기대응 포인트

경구 노출

• 입 안의 물질을 제거하고 입을 헹군다.

즉시 진료 목에 걸린 기미가 있는 경우와 구역질, 구토 등이 있는 경우

만약을 위한 진료 핥거나 씹은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

흡입한 경우

즉시 진료 연기나 재를 들이마셔서 목 통증, 불쾌감, 기침이 나타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눈을 씻는다.

즉시 진료 눈 뜨기 곤란한 경우,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

만약을 위한 진료 세안 후에도 통증, 충혈이 있는 경우

피부 노출

만약을 위한 진료 물로 씻은 후에도 발적, 통증, 발진이 있는 경우

03 증상

경구

• 가벼운 복부 불쾌감, 대량 섭취한 경우 증점제 등에 의한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흡입

• 연기나 재가 상기도 점막을 자극하므로 기침, 콧물이 생길 수 있다.

눈

-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동통이 있을 수 있다.

피부

- 체질에 따라 천연물 유래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04 독성

- 향, 연소 후의 재와 함께 무독 또는 독성이 낮은 물질로 분류되므로 소량~중소량을 섭취한 경우에는 사실상 독성이 없다. 단, 제품의 맛이나 감촉에 의해 경도의 복부 불쾌감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다.

05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경구

① **제거:** 입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뱉게 한다.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 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닦아낸다.

② **헹굼:** 입을 헹구고 가글한다.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③ **수분섭취:** 특별한 주의 사항은 없다. 평소대로 하면 된다.

흡입

-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눈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물로 씻는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

피부

① **제거:** 피부에 부착된 것을 제거하고 닦아낸다. 부착된 의복은 벗는다.

② **헹굼:** 물로 충분히 씻는다.

국외(일본중독정보센터) 사고사례

연간 건수 약 100여 건(일반 97%, 의료기관 2%, 기타 1%)

환자 연령층 1세 미만 35%, 1~5세 64%, 기타·불명 1%

사고 상황 소아가 잘못 섭취한 경우 등 100%(재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면서 눈에 들어간 경우, 흡입한 경우 등)

증상 출현 6%(구역질, 구토, 기침 등)

【1986~2009년까지 24년간 파악한 소아(12세 이하)의 사고사례】

- 선향·향에 의한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

【1986~2010년까지 25년간 파악한 고령자(65세 이상)의 사고사례】

- 선향·향에 의한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

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

※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